

‘노조 흡집 잡기’ 질문 쏟아낸 사측 교섭단

7일 4차 중앙교섭 질의응답 마무리 ... 노조 요구 과하다는 사측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

금속노조가 5월 7일 부산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 회의실에서 4차 중앙교섭에 임했다. 노조는 3차 중앙교섭에 이어 사용자 측의 질문에 답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열며 “이번 요구안은 양질의 일자리 요구를 포함해 금속산업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다”라며 “오늘로 질의응답이 끝난다. 교섭을 빠르게 진행해 마무리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왜 저런 질의를 하는지 들여봐 달라”라며 “오늘 내용은 저번보다 무겁다. 사용자들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봐 달라”라고 부탁했다.

사용자 측은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와 관련해 18개의 질문을 쏟아냈다.



사용자 측은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요구와 관련해 ▲이주노동자 처우가 실제 열악한 것이 맞는지 ▲임금체불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은지 ▲여러 요인으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임금 차별은 불가피하지 않은지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정주노동자에 대한 역차별 아닌지 등을 물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이 요구의 핵심은 합리적 수준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별 해소에 방점이 있다”라며 “임금 차별을 고착하면 이주노동자에 의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덩핑이 발생한다. 정주노

동자 보호를 위해서도 차별해소를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상민 실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범죄다. 중앙교섭 요구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보다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거나 기계를 여러 대 돌리는 경우도 많다. 기술력 부족은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다”라며 사용자 측이 든 의사소통 등의 이유는 임금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실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식사와 주거와 관련한 처우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기숙사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 의미도 있지만, 노동자를 편리하게 생산에 동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개념도 있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가중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고 답했다.

이어 사용자 측은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와 관련해 ▲노사자율의 원칙이 무엇인지 ▲노사자율 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난 법원 판결에서 현행 제도가 문제없다고 결론 났는데 개선 요구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김상민 실장은 “노사자율의 원칙이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활동범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 이다” 라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나 활동범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수준’ 의 개입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ILO의 입장이

다” 라고 강조했다.

김상민 실장은 “지난 법원 판결들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87·98·29호를 비준하고 발효하기 전에 난 것” 이라면서 “한국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세 협약을 발효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 상황이다. 핵심협약 비준 이후 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크다” 라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 제29호는 강제 또는 의무노동,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김 실장은 “한국은 한미, 한-EU FTA 등 21개 국가와 FTA를 타결했고, 이 중 10개의 협정에 노동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ILO와 배치하는 한국 실정법이 있으면 무역 제재 등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경고했다.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경영자총협회(경총) 지적을 전했다. 관련하여 김상민 실장은 “경총 보고서는 경총이 보고 싶은 통계만 가지고 만든다” 라며 “실질임금 인상률을 봐야 한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조합요구는 과도하지 않다” 라고 일축했다.

조성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은 “금속노조 교섭은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순이다. 중앙교섭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나머지 단위 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한다” 라며 “차기 5차 교섭에서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해달라” 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회장은 “여전히 (노사간)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라면서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장창열 위원장은 “좋은 결과 기대한다” 라며 “교섭에 안 나온 사측 교섭위원들도 있는데 다음 교섭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원만한 교섭으로 서로 간의 신뢰도 쌓고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2024년 5차 중앙교섭을 5월 14일 경남 창원 노동복지회관에서 연다.